



#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 때다

적벽강 · 채석강 · 위도 등 19곳  
 학술 · 교육 · 경관적 가치 높아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난 18일 파리 프랑스에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를 통해 부안이 등재됐다. 부안군은 그동안의 노력이 지난 2018년 국가 지질공원 인정을 시작으로 약 5년간의 준비 기간을 통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다는 것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부안과 고창을 포함해 총 32개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지질명소(부안 19개소, 고창 13개소)를 포함한다

특히나 부안의 지질명소는 모두 학술·교육·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매년 많은 관광객들과 각 학교 교사 및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위해 찾는 곳이다

부안지역의 지질명소로 △적벽강 △채석강 △술섬 △모항생선배공백계 △모항페퍼라이트 △유전비정자도요지 △선계폭포 △굴비위 △직소폭포 △울금비위 △계화도제스퍼 △계화도역암 △진리공룡알화석지 △소리유변성응회암 △치도리해안 △진리주상절리 △진리용머리층간습곡 △진리거대회와습곡(대월습곡) △대/소형제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함께 올해 개최되는 세계자연유산대회까지 부안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시작됐다

그렇다면, 부안의 지질명소 중 가장 가볼만한 곳은 어디일까?

**▲적벽강**  
 적벽강은 해안이 붉은색 암반과 절벽으로 되어 있어 석양이 비추면 오색찬란한 빛이 절경을 이룬다. 적벽강과 채석강은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절경으로 2004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적벽강은 백악기 후기 거대한 호수 아래 퇴적된 격포리층이 지질운동으로 솟아올랐다 침식되면서 적벽강이 만들어졌다. 또, 차가운 퇴적물과 뜨거운 유문암질 용암이 만든 페퍼라이트는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매우 아름답다. 페퍼라이트는 굳지 않은 축축한 퇴적물 위에 뜨거운 용암이 덮이면서 퇴적물 속 수분이 고열 때문에 폭발하고, 하중에 의해 쌓이면서 퇴적물과 용암이 뒤섞여 형성된다.



**▲채석강**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 뒤편 일대 1.5km에 이르는 층암절벽과 바다를 채석강이라고 한다. 중국 당나라 시인인 이태백이 달그림자를 보면서 풍류를 즐긴 채석강의 경치와 결준 만해 채석강이라고 불렀다. 이름에는 강이 붙었지만, 바다에 접해 있다. 채석강의 절벽은 차곡차곡 쌓인 퇴적암이 마치 책 수만권을 쌓아 올린 것 같고, 시루떡을 쌓아놓은 것 같다. 채석강을 이루고 있는 퇴적암은 격포리층으로 역암 위에 역암과 사암, 사암과 이암의 교대층, 셰일, 화산암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퇴적환경은 과거 이곳이 깊은 호수였고, 호수 밑바닥에 화산분출물이 퇴적되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 이 절벽에서 단층과 습곡, 관입구조, 파식대 등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지형과 지질학에 좋다.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해식에, 평평한 파식대, 해식동굴도 발달했다. 채석강 바다에는 자갈과 파도의 합작품인 돌개구멍이 발달했는데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



이 고여서 생긴 조수웅덩이도 곳곳에 있다.

**▲고솨도치 섬 위도**  
 변산반도의 서쪽 바다 약 13km 떨어진 곳의 위도는 섬이 고솨도치 같아서 '고솨도치 위(嶋) 자를 쓴다. 섬의 최대 길이 약 8km, 최단길이는 약 4km이다. 허균이 홍길동전에서 꿈꾸었던 울도국으로 알려진 섬이다. 위도 바다는 황금어장이라 1970년대 초까지 봄·가을마다 파시가 열렸다. 위도에는 위도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지질명소 7개소가 있다. 이 중에서도 진리공룡알화석지와 위도해수욕장에 위치한 대월습곡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지질명소이다. 진리공룡알화석지는 붉은 셰일 암반 속에서 관찰된다. 지름 약 15cm 내외의 회색빛의 공룡알이 구형체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 공룡알화석지 주변에는 당시의 퇴적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질단서들이 많다. 이러한 지질단서를 찾아 공룡이 살았던 환경



을 찾아내는 공룡사건 탐정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관찰할량 시원한 바닷물이 들어오는 위도해수욕장에는 아주 근사하면서 웅장한 달모양의 암석이 있다. 지층이 반으로 접힌 듯한 퇴적층은 당시에 아주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게끔 해준다. /부안=김석진 기자

.....

석양 비추면 적벽강의 오색찬란한 빛 '절경' 국내 최고 규모 페퍼라이트 '눈길'

채석강 절벽, 차곡차곡 쌓인 퇴적암이 책 수만권 쌓아 올린 듯 보여 과거 깊은 호수 밑바닥 화산 분출물 퇴적 짐작

위도, 변산반도 서쪽 바다 13km 떨어진 곳에 위치 위도화산암으로 이뤄진 지질명소 7곳 보유 진리공룡알화석지 대월습곡 등 '인기'

